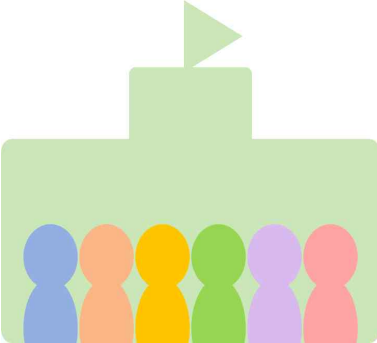


## 2025학년도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교육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배려를 배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통합교육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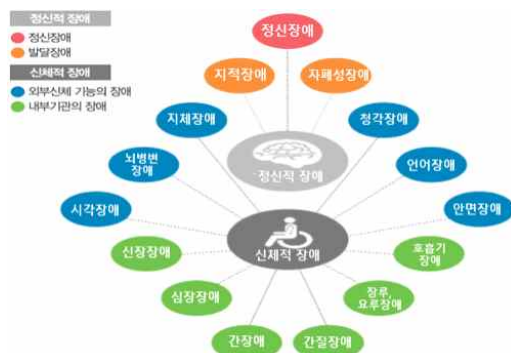
학교는 작은 예비사회입니다. **통합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수업시간의 일부나 전부를 함께 교육받는 형태로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학생은 또래집단과 지내며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비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과 상호작용하며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나와는 조금 다른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 2. 특수교육 관련 용어 및 장애 이해

<b>특수교육 대상자</b>	법 제 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b>통합교육</b>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b>특수학급</b>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 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 등록을 했다고 해도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닐 수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은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학생이어도 장애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 3.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출처: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BF' 배리어 프리

사진에 있는 기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사회는 '다수'를 기준으로 시설이나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다수'의 생각이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외국인, 새터민 등 우리 사회의 '소수'들은 환경을 그들에게 맞추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로 부터 불편한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수성'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소수'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물자는 의미에서 '배리어 프리', 즉 장벽을 허물자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BF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로 Barrier(장벽)와 Free(자유로운, 없는)의 합성어입니다.**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으로 1974년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가 현재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 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벽까지 허물자는 운동의 의미로 확대 사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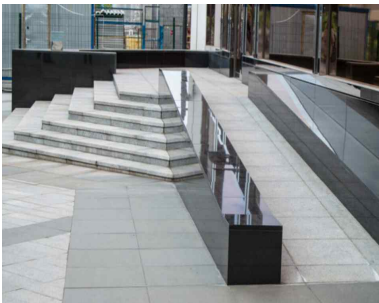
맨 위 사진에 있는 기구도 바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그네를 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배리어 프리' 그네입니다.

소수를 배려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다수에 속한 사람들도 시대나 환경이 바뀌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언제나 '소수'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다수성과 소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위한 일이 곧 나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모습의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려는 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가고 있기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배리어 프리의 의미를 늘 기억하고 실천해서 모두가 '장벽' 없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 우리 주변의 '배리어 프리'

출처: ①네이버블로그 넥슨핸즈 ②mbn뉴스 ③시니어매일



①경사로



②영화, 드라마 송출 시 자막과 음성해설 제공



③촉각으로 감상하는 영화

#### 4. 장애인 차별 금지법

##### 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나) 일상 생활 속 장애인 차별 용어

### 일상생활 속 피해야 할 장애인 차별 용어

“정신지체”

정신지체라는 말에는 모자라다, 지연시키다라는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2007년 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장애인'으로 바뀌었으니 더욱 조심해야겠죠?

“장애우”

벗우(友)자를 쓰는 장애우는 얼핏 보면 좋은 말 같지만 오히려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말입니다. 초면인데 본인을 친구로 지칭하는 것도 이상하고 만나는 상대의 연령대가 다양할 수 있는데 모두 '친구'라고 지칭하는 것 또한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인”

정상인은 흔히 장애인의 반대말로 많이 불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린다면 장애인도 비정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반드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지칭 할 때는 비장애인 이란 말을 사용하여 모두를 배려하도록 해요.

잠깐!  
말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봅시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특별한 유튜버들을 소개합니다!



#### 원샷한솔

고등학생 때 희귀질환으로 시력을 잃은 김한솔씨의 채널.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타는 법,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법 등 시각장애인의 일상 이야기를 담아 인기를 끌고 있다.



#### 굴러라 구르님

'뇌성마비' 고등학생도 똑같다.. 공부 안 하는 건...' 뇌성마비 고등학생의 일상 이야기를 담아 인기를 끈 채널. 휠체어로 제주도 여행하기, 휠체어 타고 롯데월드 가기, 휠체어 꾸미기 등 독특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 위라클

추락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후 재활을 통해 사지마비를 이겨내는 과정, 지체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담은 콘텐츠 등 장애인의 어려운 현실 속 배리어프리 알리는 유튜버이다.

2025. 3.

익산어양중학교장 귀하(직인생략)